

## 완전 수입 개방시대에 시장 우위 지켜나가야

계미년(癸未年) 새해가 밝았다. 금년 한해는 완전수입개방에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싸워 시장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육우고기도 브랜드화로 고급육생산에 주력하는 것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고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0%가량이다. 하지만 그 비중에 비해 지금까지 육우고기는 소비자들로부터 저등육 취급을 받아왔다. 거세비육으로 현재는 육질등급이 중등육, 상등육까지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육우비육의 성패는 더욱 고급육생산에 주력하여 품질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서울가락동공판장에서 도축되는 전체물량 중 육우거세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가량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도매시장에서 육우거세우의 선호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이기도



김 남 용 / 육우분과위원장

“

계미년(癸未年) 새해가 밝았다. 금년 한해는 완전수입개방에 따른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싸워 시장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육우고기도 브랜드화로 고급육생산에 주력하는 것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향상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하다.

하지만, 지난해는 그동안 육우농가들이 강한 의지로 거세비육을 해온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2등급이상 출현율이 나오지 않아 약간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사양기술에 자신이 붙은 농가들은 점점더 희망에 부풀어 육우비육에 대한 열의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현재 육우고기는 수입냉장육과의 경쟁에서 가격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품질면에서는 밀릴 수 밖에 없다. 이제 육우비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육우가 산업으로써 시장에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육우농가와 관련업계, 학계 등이 함께 연구하고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사양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육우농가들이 습득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이어져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16일(월) 개최되었던 “육우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 김완영교수는 비육사업의 경쟁상대인 수입냉동·냉장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랜드화, 기능성화, 고급육생산을 통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승산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육우고기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절실함도 설명하였다.

그동안 낙농가들은 젖소수소를 단순히 부수입으로만 생각했다. 이제 낙농가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젖소수소 한마리를 수입냉장육으로 보면 지육 400kg를 대체할 수 있다. 단지 송아지 한마리 이상의 소증합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젖소수소 송아지의 폐사율이 약 10%대에 이른다. 이것은 낙농가들이 분만 후 초유급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초유급여만 제대로 해준다면 폐사율을 2~3% 이내로

낮출 수 있다.

동시에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원들인 낙농가와 육우농가 사이에 직거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고, 생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는 이와 같이 육우농가들의 권익과 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2001년 11월 결성된 이래 남원, 안성, 강화군지회가 결성되어 육우분과위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졌으나, 아직 육우농가들의 참여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올해는 청원군, 문경일원 등 육우사육 농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별로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회개최 등 육우농가들의 결집을 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육우분과위를 명실상

부한 육우농가들의 정보교

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소속 낙농가들은 원유과잉 문제를 농가에 게만 떠넘기려는 것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 7,000여명이 모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회장에 불러들여 낙농인들 앞에서 우수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우인들도 낙농가들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의 권익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개방에 따른 완전경쟁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의 획득과 보다 빨리 사양기술의 습득을 통해 하루빨리 고급육생산에 진입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잘못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문제도 이젠 누구의 몫이 아니라 생산자인 우리 육우인들의 몫이다. 이런 일들은 육우농가들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재미년 한해는 전국의 모든 육우농가들이 하나로 뭉쳐 육우도 산업으로써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아 헤쳐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필자연락처 : 011-492-3366)

